

아파트 보조주방 이야기

고객의 반응이 궁금하여 보조 주방 위치에 잠입(?)해서 주부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 회사는 주부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헤아려...”라고 하는 등
주부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도 좋아서 속으로 매우 흐뭇하였다.

나는 H그룹에 입사하여 아파트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분양 업무를 시작으로 30여 년을 건설회사에 근무하였다. 그 동안 어려웠던 일도 많았고 보람을 느꼈던 일도 많았으며, 한 마디로 별의별 일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 H아파트 계약서의 위조범 일당을 한 달여 추적하여 경찰에 넘겨 더 이상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콜롬보 장 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일이나, 모 백화점 주변의 공동 묘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이장했던 일 등이 재미있고 뜻깊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의 평면에 보조 주방 개념을 도입한 것도 매우 보람이 있었다. 기존에는 창고나 허드렛일을 하던 곳쯤으로 여겨지던 주방 쪽 베란다의 공간을 가스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냄새 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보조 주방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내가 이 보조 주방을 처음 생각한 것은 업체마다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평면 개발에 몰두하던 1990년대 초였다.

신도시 처음으로 분양하는 평촌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준비하면서 개발 회의 때 C주택의 J회장에게 보조 주방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사업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J회장이 즉시 채택함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을 새로 하나 들여놓으면서 기존에 쓰던 것을 뒷 베란다에 두고 사용해보니 매우 편리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도시 모델 하우스에도 한번 적용해보자는 발상에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모델 하우스 뒷 베란다에 도시 가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고무 호스 약 1m 정도만 연결하여 ‘냄새나는 요리는 여기서 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만 붙여놓아 가스레인지 사용 위치를 예시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로서는 건설 원가의 부담 없이 가장 경제적인 마케팅 차원의



장희준
금성백조주택 부사장

홍보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델하우스를 오픈해놓고 고객의 반응이 궁금하여 보조 주방 위치에 잠입(?)해서 주부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 회사는 주부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헤아려...”라고 하는 등 주부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도 좋아서 속으로 매우 흐뭇하였다.

당시 재미있었던 일 중의 한 가지는 한창 밤샘 작업까지 하며 모델하우스를 준비하던 끝에 오픈을 하루 남겨둔 날에 있었다. 모델하우스 오픈 전날, 그 때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K건설의 임원들이 모델하우스에 찾아와서 한번 먼저 볼 수 없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상품을 세상에 선보이기도 전에 경쟁사에서 먼저 보자는 것이었는데 당시 영업부장과 개발부장을 겸하고 있던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하였고 그들은 멋쩍어하며 그냥 돌아갔었다.

이틀 늦게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K건설은 C주택의 보조 주방을 그대로 모방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분양 안내 팸플릿만은 시간상 도저히 재제작이 불가능했던지 보조 주방 표시 없이 그대로 배포하여 C주택의 보조 주방을 그대로 모방했음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여하튼 보조 주방은 그 뒤 거의 모든 주택 건설 회사들의 유닛에 도입되었고, 손 팔레타가 추가되고 주방 장도 설치되는 등 보다 발전된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지금도 나는 아파트 생활 문화에 작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으로 매우 뿌듯하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발명과 실용 특허가 그렇듯이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보다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